

# “빛이 투과하는 부분은 푸른색”...20대 RM을 통과한 건 ‘인디고’

## ‘인디고(Indigo)’의 ‘아이덴티티 필름(Identity Film)’ 방탄소년단 멤버 중 세 번째 공식 솔로 활동 초읽기

‘청사진법(靑寫眞法)’으로 불리는 시아노타입(Cyanotype)은 일종의 판화 기법이다. 푸른빛 특수 용액을 전이나 종이에 발라 물체를 놓아두고 햇빛에 노출시킨 후 그 용액을 물로 씻어내면 물체가 놓여 있던 공간의 자리가 푸르게 변한다.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RM(28·김남준)이 23일 방탄소년단 공식 소셜 미디어에 공개한 첫 공식 솔로 앨범 ‘인디고(Indigo)’의 ‘아이덴티티 필름(Identity Film)’은 이 시아노타입 기법을 활용했다.

아트웍 비주얼 필름 같은 이 영상엔 흔들리는 꽃의 실루엣이 나타나면서 시작하고, 푸른 색조의 이미지들이 빠른 컷 전환을 통해 등장한다. 날 것의 바람 소리가 삽입됐다.

특히 ‘인디고’의 비주얼 아이덴티티가 마치 잉크가 물들 듯 나타났다 희미하게 사라진다. 다큐멘테이션 오브 마이 유스 인 더 모멘트 오브 인디펜던트 페이즈(Documentation of my youth in the moment of independent phase·독립 단계

순간 내 젊음의 기록), ‘더 라스트 아카이브 오브 마이 트웬티스(the last archive of my twenties·내 20대의 마지막 기록)’ 등의 문구가 나타나며 영상은 마무리된다.

RM의 인스타그램 계정명 ‘kive’가 생각하는 문구다. RM은 자신의 활동명 RM의 첫 글자 ‘R’에 ‘아카이브(archive·파일 저장고)’를 합했다. 그의 음악 작업일 이름이기도 하다.

RM은 앞서 아날로그 감성이 느껴지는 공간 사진, 실물 앨범 이미지 등을 차례로 공개했다. 특히 산책하는 동안(while taking a walk), 샤워, 드라이브, 커피 브레이크, 독서 등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정리한 목록이 눈길을 끌었다.

특히 미술애호가인 RM에서 그림, 조각, 판화 등 미술은 그의 예술 세계에서 음악만큼 비중을 차지한다. 그는 얼마 전 뉴욕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예술을 볼 때 현기증이나 심박수 등 신체적 증상이 나타났으며 “스탕달 증후군”과 거의 비슷했다”고 말했다.

다. 스탕달 증후군(Stendhal syndrome)은 뛰어난 미술품이나 예술작품을 보았을 때 순간적으로 느끼는 각종 정신적 충동이나 분열 증상을 가리킨다. RM은 복제품으로 접한 작품들을 직접 보니 충격적이었으며 “놀라운 경험이었다”고 했다. 그런 RM이 첫 정식 음반에서 미술 관련 소재를 끌어오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이번 ‘인디고’는 RM이 지난 2018년 10월 공개된 믹스테이프 ‘모노.(mono.)’ 이후 약 4년 만에 선보이는 개인 작품이다. 앞서 자신의 일기 같은 앨범이라 소개했는데 자신의 고민과 생각을 고스란히 담아낼 것으로 보인다. ‘인디고’는 청춘을 상징하는 쪽빛, 남색을 뜻한다. 주로 청바지에서 많이 드러나는 색이다.

빅히트뮤직은 “시아노타입 기법은 빛이 투과하는 부분은 푸른색, 빛이 투과하지 못하는 부분은 흰색을 띠고, 오브제의 독특한 실루엣을 만들어 낸다. RM은 이 기법으로 만든 다양한 이미지로 ‘인디고’ 각 트랙에 담긴 이야기와 감정을 표현했다”면서 “솔직한 감정과 고민, 여러 단상들이 고스란히 담긴 그의 일기와 같은 앨범”이라고 소개했다.

RM이 믹스테이프 형식이 아닌 공식 첫 솔



로 앨범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양한 아티스트와의 경계 없는 협업을 통해 폭넓은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빅히트 뮤직은 전했다.

이미 몇몇 아티스트 이름이 온라인에서 거명되고 있다. RM은 미국 팝스타 겸 거물 프로듀서 파렐 윌리엄스(Parrell Williams)의 프로젝트 ‘프렌즈’에 참여했는데, 윌리엄스가 RM의 솔로 앨범에도 참여했다는 예상

이 나온다. 과거에 인기를 끈 국내 밴드의 이름도 나오고 있다.

이미 RM은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과 협업했다. 최근 ‘사건의 지평선’으로 역주행 신드롬을 일으킨 윤하, 밴드 ‘뭇’의 리더 겸 솔로 뮤지션 이이언, 기타리스트 은희영, 영국 팝 듀오 ‘혼네’, K팝 얼터너티브 그룹 ‘바빙타이거’ 등과 각각 곡들을 작업했다.

‘인디고’는 내달 2일 발매된다.

## 현역 김연경 “예능 ‘코리아넘버원’ 출연 고민 컸지만…”



배구선수 김연경이 첫 고정 예능물 ‘코리아넘버원’ 출연을 결심한 이유를 밝혔다.

김연경은 23일 넷플릭스 코리아 넘버원 제작발표회에서 “운동선수이고 아직 현역으로 뛰고 있어서 ‘이걸 해도 괜찮을까?’ 고민이 컸다”면서도 “어쨌든 취지가 좋은 프로그램이고, (유재석·(이)광수 오빠와 함께 하니 ‘재미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 넷플릭스, 25일 공개 예정

개그맨 유재석은 김연경과 배우 이광수가 닮은꼴이라고 짚었다. “두 사람 키가 192cm이고, 발 사이즈도 똑같다”며 “녹화하다가 신발을 바꿔 신어서 깜짝 놀랐다”고 설명했다. MC 박경림이 “쌍둥이라고 해도 되겠다”고 하자, 유재석은 “진짜 그 정도 얼굴도 닮았다”고 공감했다. 김연경은 “(이광수와) 다른 점을 찾고 싶다”고 웃었다.

코리아 넘버원은 세 사람이 장인을 찾아가 전통 노동을 체험하는 모습을 담는다.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전통의 매력과 노동의 가치를 나눈다. 정호민 PD가 제작사 스튜디오 모닥을 설립하고 처음으로 선보이는 예능물이다. 유재석과는 JTBC ‘슈가맨’(2015-2016), tvN ‘일로 만난 사이’(2019)에 이어 세 번째 호흡한다.

유재석은 “정 PD에게 ‘김연경 선수와 광수가 함께하는 걸 보고 싶다’고 했다. 예고원에서 연경 선수가 광수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변하는 걸 보고 놀랐다”고 귀띔했다. “정 PD와 계속 인연이 있었고, 프로그램 관련 의견을 많이 주고 받았다. 코리아 넘버원은 다른 곳에서는 하지 않는 특별함이 있었다. 세계의 관심이 높아진 시기에 넷플릭스를 통해 ‘대한민국 문화’를 알리고 나도 배울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정 PD는 “코리아 넘버원 콘셉트를 생각했을 때 다른 분을 떠올릴 수 없었다. 세 분 이상의 조합을 생각할 수 없었다. 정답이 된 조합”이라며 “유재석씨와 이야기했을 때 떠올린 두 분이 서로 일치했다. ‘이 분들을 모실 수만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성사가 돼 기뻐했다”고 했다.

25일 공개.

## 전도연·정경호, 첫 연기 호흡…‘일타 스캔들’



‘일타 스캔들’이 시작부터 훈훈한 대본 리딩 현장을 공개했다.

이날 현장에는 출연배우들과 제작진이 모두 모여 대본 첫 리딩을 시작했다. 유재원 감독, 각 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본 리딩이 시작됐다.

tvN 드라마 ‘일타 스캔들’(연출 유재원, 극본 양희승)은 사교육 전쟁터에서 펼쳐지는 반찬 가게 사장 남행선(전도연)과 수학 일타 강사 최치열(정경호) 로맨스를 그린 드라마다.

배우 전도연, 정경호, 이봉련, 오의식, 신재하, 노윤서 등이 출연한다. 드라마 ‘고교 처세왕’, ‘오 나의 귀신님’ 이후 유재원 감독과 양희승 작가가 또 다시 뭉쳤다.

전도연은 국가대표 운동선수 출신인 ‘국가대표 반찬가게’ 사장 남행선 역을 맡았다.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선택을 믿는 강한 사람이다. 전도연은 능수능란한 안금 조절로 현장의 분위기를 이끌며, 사랑스러운 매력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냈다.

정경호는 수학 일타 강사 최치열로 분한다. 최치열은 재력과 유명세를 겸비한 인물로, 예민하고 까칠하지만 일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정경호는 어려운 수학 공식도 문제없이 소화하며 캐릭터에 완벽히 몰입했다.

여기에 이봉련, 오의식, 신재하, 노윤서, 장영남, 김선영, 황보라 등 베테랑 배우들이 드라마의 신뢰감을 더했다. 개성과 매력으로 무장한 캐릭터로 인해 극의 활력을 불어넣었다.

제작진은 “배우들의 호흡이 좋아 연기만으로도 보는 재미가 있었다. 현장의 따뜻한 분위기가 드라마 속에 고스란히 녹아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많은 기대와 관심을 당부했다.

‘일타 스캔들’은 내달 1월 방송 예정이다.

## 가수 비아이 “비틀즈처럼 시대 초월 아티스트 되고파”

### 글로벌 EP ‘러브 오어 러브드 파트 원 관련 인터뷰

가수 비아이(B.I)가 음악에 대한 진심을 드러냈다.

23일 소속사 131레이블에 따르면, 비아이는 전날 미국 그래미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 인터뷰에서 지난 18일 발매된 글로벌 EP ‘러브 오어 러브드 파트 원(Love or Loved Part. 1)’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전했다.

그래미는 비아이에 대해 ‘성장과 자유를 탐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티스트’라고 소개하며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탐구하는 여정을 이어오고 있다. 그가 음악을 만드는 과정은 진정성으로 귀결된다. 새롭고 강렬하게 반영된 비아이의 결의는 전 세계에서 성공을 거두었다”고 밝혔다.

비아이는 새 앨범에 대해 “내 인생보다는 청춘의 사랑에 관한 앨범이다. 사랑의 세계에는

얼마나 다양한 감정이 연관되어 있는지 흥미롭다”면서 “저에게는 모든 도전이 성장의 기회였다”고 애정을 표했다.

특히 타이틀곡 ‘킵 미 업(Keep me up)’의 제작기에 대해 “저는 한국에서, 프로듀서 분들은 미국에서 작업했다. 그들의 스타일과 음악을 만드는 과정을 배우려고 노력했다. 이는 새로운 종류의 음악을 만드는 무기”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앨범 프로젝트의 지향점이자 비아이가 바라는 방향성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었다. 비아이는 “리스너 분들이 계속해서 제게 더 많은 것을 원하기를 바란다. 영원히 지속되는 좋은 노래를 끊임없이 만드는 아티스트, 비틀즈처럼 시대를 초월한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로 기억되고 싶다”고 희망했다.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일까. 비아이는 “월드



투어로 더 많은 팬분들을 만나고 싶다. 정규 2집 준비도 하고 있다. 또한 ‘그래미 어워즈’에서 지명되는 것을 상상하기 시작했다”며 기대를 내비쳤다.

이번 ‘러브 오어 러브드 파트 원’은 아이튠즈 18개 지역 톱 앨범 차트 1위를 비롯해 스포티파이, 애플뮤직 등 전 세계 음악차트에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다.

## 김동욱·진기주, 1987년에 갇혀버린 두 남녀

KBS 2TV 새 수목드라마 ‘어쩌다 마주친, 그대’의 메인 포스터가 공개됐다.

오는 2023년 1월 첫 방송하는 ‘어쩌다 마주친, 그대’(연출 강수연, 이윤희 / 극본 백소연 / 제작 아카데미) 측은 23일 배우 김동욱과 진기주의 투 샷이 담긴 메인 포스터를 선보였다.

‘어쩌다 마주친, 그대’는 1987년에 갇혀버린 두 남녀의 이상하고 아름다운 시간 여행기다. 과거 연쇄살인 사건의 진실을 찾아 나선 윤해준(김동욱 분)과 백윤영(진기주 분)이 서로 목표가 이어져 있음을 깨닫고 사건을 풀어나가는 과정을 그린다.

포스터 속 김동욱과 진기주는 복고풍의 간판들이 즐비한 예스러운 골목 한가운데 서 있다. 특히 비장한 표정을 지은 두 사람의 뒤로 오래된 디자인의 자동차가 강렬한 헤드라이트를 내뿜으며 시간 여행의 서막을 알렸다. 자동차 번호판의 숫자 0508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궁금증을 자아낸다.

김동욱은 에둘러 말하기보단 핵심부터 파고



드는 직선적 성격의 윤해준 역을 맡았다. 극 중 윤해준은 시니컬한 겉모습과 달리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내면의 반전 매력을 소유자다. 진기주는 한때 작가의 삶을 소망했지만, 현실적인 사회에 치여 와이파이가 없는 곳에서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는 현대의 평범한 직장인 백윤영 역을 맡았다.

## 이은지·엄지윤→지코...‘SNL 코리아’ 시즌3

### 대세 MZ 호스트 대거 공개

쿠광플레이어 코미디 쇼 ‘SNL 코리아 3’가 1회 호스트 배우 송승헌의 열기를 이어 받을 호스트를 대거 공개했다.

2회 호스트로는 개그우먼 이은지, 엄지윤과 그룹 ‘오마이걸’ 미미가 출연한다. 이은지는 유튜브 채널 ‘포식대학’ 콘텐츠 ‘05학번이즈백’에

서 부케 ‘길은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오마이걸 래퍼 미미는 tvN 예능 ‘뽕뽕 오락실’에서 대활약하며 예능 루키로 떠올랐다. 엄지윤은 유튜브 채널 ‘숫삭스’에서 ‘장기연애’, ‘찐남매’ 등 리얼한 현실 연기를 선보이며 이름을 알렸다.

3회 호스트는 배우 채수빈이다. 2013년 데뷔한 그는 드라마 ‘역적 : 백성을 훔친 도적’,

‘구르미 그린 달빛’, ‘여우각시별’에서 사랑스러운 매력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SNL 코리아3’에서는 그동안 감춰져 있던 색다른 모습을 보여 줄 예정이다.

래퍼 지코가 4회 호스트로 등장한다. 지코는 그룹 ‘블라바’ 리더로 2011년 데뷔했다. ‘베리 굿(Very Good)’, ‘힐(HER)’, ‘부터’, ‘터프 쿠키’, ‘오키 도키’ 등 많은 히트곡을 남겼다. ‘아무노래’, ‘새빨’ 등으로 켈리지를 유행시킨 장본인이다.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공개. 뉴스